

# 감별곡



[해제]

<감별곡>의 내용은 평양의 한 여인이 가을밤 바람소리에 상상몽을 깨고 임을 그리워하는 이별의 노래이자 상사의 노래이다. 소슬한 가을 밤 전전반측 잠 못 이루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서술해 간다. 지난날을 회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아들 딸 낳고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가슴속으로 바란다. 끝내 이루지 못함을 알고 심지어 인간들 사이에 이별을 안겨준 부처님까지 원망한다.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능라도나 울미대를 오르며 심사를 달래도 보나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누를 길이 없다. 주인공은 작품의 말미에서 임과 함께 만단정회를 잠시 꿈속에서 나누던 중 무정하게 들려오는 피리소리에 잠을 깨고 한스러워하는 정황으로 노래가 끝나는 이별가이자 임을 그리는 상사의 가사이다. 임을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는 여인의 심정을 잘 노래한 가사이며, 이 가사는 "어제밤바람소래금성이완연하다"로 시작되는 가사이다.

[원문]

감별곡

어제밤 바람소래 금성이 완연하다  
 고침 단금에 상사몽 훌쳐깨여  
 죽창을 반개하고 막막하기 안자스니  
 말리 장공에 하운이 흐터지고  
 천연 강산에 찬기운 새로워라  
 심사도 창연한대 물색조차 우감하다  
 정수에 부는바람 여한얼 이뢰난듯  
 추국에 매친이슬 별루얼 먹음난듯  
 잔류 남교에 춘앵을 의귀하고  
 호월 동영에 추원이 슌이운다  
 님여이고 썩은간장 하마하면 끈치리라  
 삼춘에 즐기던니 옛런가 꿈이런가  
 시우사창 요적한대 흠한 깊흔정아  
 야월삼경 사어시에 백연사자 구든언약  
 단봉이 높고높고 파수가 깊고깊혀  
 문어질줄 몰나스니 끈치질줄 알앗스랴  
 양신에 다마함은 예부터 잇것마은  
 지이인 하는 조물에 땀이로다  
 흘연이 부는바람 화촉얼 요동하니  
 웅봉자접 이 애연이 헛단말가  
 진장에 감춘호귀 도적할길 바이업고  
 금능에 잠긴앵무 다시히롱 어려워라  
 지척동방 철리되여 바라보기 아득하다  
 은하작교 끈쳐스니 건넌갈길 묘연하다  
 은정이 끈쳐거던 찰라이 잇치거나  
 아라다운 자태거동 이모에 매양있어

못보아 병이되고 못이저 원수로다  
천수만한 가득한대 끝끝치 늦겨워라  
하물며 이는춘풍 심회얼 부처내니  
눈압에 원갓갓이 전혀다 슬힘이라  
바람에 지는낙엽 풀속에 우는김생  
무심이 듯기되면 관기될바 업근마은  
유유별한 간절한대 소래소래 수성이라  
구곡에 맏친설름 엇지하면 풀쳐널고  
아해야 술부어라 행여난 관회할가  
잔대로 가득부어 취토록 먹은후에  
석양 산로로 얼밀대 올라가니  
풍광은 예왈나 만물이 소연하다  
릉라도 쉬한버들 성긴가지 소설하고  
금수봉 꽃진남게 상업이 표불하다  
인간에 변화함은 측량하야 이를손가  
간련히 눈얼들러 원근을 바라보니  
만탄에 널은물결 탕양함이 회포갓고  
용산에 느진경은 창울함이 심사갓다  
부통문송 객정에 이별에겨 슬허마라  
초패왕 장한솟도 죽기로 리별서어  
옥장 비가에 눈물을 지었으니  
오강 풍우에 우단말은 모드럿내  
천지난 몇몇재며 이별은 뉘기뉘기  
세상이별 남여중에 날같은이 뉘있으리  
수로문에 찌는배는 향하는곳 어대매요  
만장수회 설련후에 철리약수 건너가서  
우리님 계신곳에 수이수이 풀고지고  
성두에 느진경을 견대여 못볼내라  
장탄다 우로 곡탄얼 지었으니  
바람결에 오총성은 문나니 어나절고  
초해을 썰쳐신고 섬거이 이르거러  
영명사 차지들어 저중아 무러보자  
인간리별 내신부처 언어탑전 안저신고  
님그린 일편단심 불전에 발원하야  
님을다시 모불망정 찰아리 죽어져서  
백골은 진토되나 령혼은 높이올나  
님안진 난간압해 얼루어 보리로다  
다시금 생각하니 이도또한 천수로다

죽장을 곳치집고 부벽누 올라보니  
 들밭개 점점봉은 구름속에 소사잇고  
 청강에 흐르는물 추천과 한빛치라  
 이웃고 도는명월 교교이 빛이는데  
 그린상사 그르한중 옥면인가 아래던니  
 어더한 뜬구름이 명월얼 가리원노  
 어와 이원일인고 조물의 타시로다  
 저구름 언재것쳐 밝은빛 다시불가  
 송시간에 명화편을 기리유편 비회하니  
 한노상풍 소설한대 취한술 다새엿다  
 낙엽을 깔고안자 금준을 다시열고  
 일배일배 부일배에 몽노히 취해서라  
 저른탄식 긴한숨에 발을윙겨 이르그러  
 지향업시 가는길에 에연당 드단말가  
 부용일지 꺼어들고 유정이 도라보니  
 수면에 비친꽃은 님이나을 반기난듯  
 영간에 든은비는 내심정을 알리난듯  
 양양 백구는 흥노본에 왕내하고  
 쌍쌍 원앙은 록수중에 부침한다  
 이인생 가련함에 미물만도 못하도다  
 출연이 다떨치고 백말을 채을쳐서  
 산인야 구름인야 정처업시 가자하니  
 내마음 현황하여 갈곳이 아득하다  
 허회 탄식하며 초려로 도라오니  
 간곳마다 뵈는물색 어이그리 심난한고  
 울밀에 피는국화 담안에 섰은오동  
 님과갓이 불양이면 경계조타 하련마은  
 도도심사 울울한중 도리혀 수색된다  
 무정세월 여유한대 나날이 깊어가니  
 가기난 썰을차자 구추에 느젓서라  
 상하의 우는실술 너는무삼 날을미워  
 지는달 새는밤에 잠시도 꺾이잔코  
 기소래 짜른소래 경경이 슬피우러  
 적이나 남은간장 어이마저 썩어주나  
 새벽달도 더되우러 밤도자못 기럿서라  
 상풍에 운는홍안 운소에 높이써서  
 웅웅한 긴소래로 짝얼불너 슬피우니  
 부은춘풍 화월야에 두견성도 슬프거던

오도야 단장의에 참아어이 드럴소야  
 네비록 미물이나 사정은 날과갓타  
 일폭화전 펼쳐놋코 시시사정 그려내여  
 위우쳐 이르기을 이내사정 가져다가  
 명월사창 요적한대 님압해 던져주렴  
 지리한 이리별은 생각사록 곳이업내  
 인년업서 못보난지 유정하여 그르한지  
 인연이 업섯스면 유정인들 엇지하며  
 유정함이 업섯스면 그리긴들 어이할고  
 연분도 업지안코 유정도 하근마는  
 일성중 남북초에 어이그리 못보난고  
 오호명월 발은째와 초산운우 성길적에  
 설진심중 무한사도 황연한 꿈이로다  
 무진정회 강임하여 문얼고 바래보니  
 무심한 쓴구름은 끈처다가 다시잇내  
 우리님 계신곳대 저구름 아래언만  
 오며가며 두사이에 무삼약수 갈여건내  
 양처가 막막하여 연신이 끈탄말가  
 돌째업는 이내사정 어대다가 지점하리  
 벽상에 걸인오동 강님하여 내리노코  
 봉구 황곡조얼 한심씩여 기리타니  
 여령이 요요하여 원하는듯 한하는듯  
 상여에 옛곡조는 의면이 잇것만은  
 탁문군의 말는지음 심심히 자취업다  
 결연한 이리별이여 이치기도 어렵도다  
 전생차생 무삼취로 우리두리 생겨나서  
 인간백년 얼마과대 각재동서 그리난고  
 황천후도 이썬이라 이별업시 원이로다  
 진시황분 시서할째 언어틈에 숨엇다가  
 지금까지 유전하여 나의일신 병이된고  
 수양미월 흠씩가라 황모필 덩석푸러  
 월매초죽 도든화초 그리기는 올컨마는  
 명월사창 적막한대 나는무엇 그리는고  
 상사라는 두글자을 나얼위해 지엇도다  
 창해월 저달빛언 님의곳의 비치리라  
 심중에 무한정수 나흔자 뿌이로다  
 가색에 심난한대 해는어이 수이가노  
 잘새는 짝얼지어 무리무리 도라가고

야색는 참담한대 먼대남기 히미하다  
 경경이 흐르는빛 절기차자 형화로다  
 적적한 빈방안애 천연이 혼자안자  
 지낸일 풀쳐내고 오는은서럼 생각하니  
 신밧게 태산이요 물밧개 대해로다  
 구의산 구름갓치 바래도록 머릿난대  
 장장추야 긴긴밤에 참아어이 견델소야  
 이모조록 잠얼들어 꿈에나 보려하나  
 원앙침 서늘하고 비취금 냉낙하야  
 효월한 잔등불에 꿈도그리 어렵도다  
 일병잔촉 벗설삼아 전전불대 안자스니  
 금강명 새벽달에 오경인줄 깨닫게라  
 안젓다가 누엇다가 다시금 이으안자  
 이리헤고 저리헤여도 찰할이 원수로다  
 고진 감내은 이욕키 아랏것마는  
 명천이 감동하고 귀신이 우의하여  
 남교에 굿신폴노 월노정 다시매자  
 소상강 언어날애 고안얼 다시만나  
 봄바람 가을달에 거울갓치 마주안자  
 이른일 저른말삼을 정화중에 너어두고  
 백년이 다진토록 가이업시 질기다가  
 남갓치 유자생여하고 한삼시 지낼적에  
 인심이 귀이하야 뉘라서 시비커든  
 추풍오호 저문날애 금범을 놓피달고  
 가다가 아모대나 산조코 물조흔대  
 자좌오향 지법으로 수간초옥 지엇스니  
 집터얼 불작시면 평생에 소원이라  
 경태릉 모입수에 고두안산 더욱조타  
 창송은 울밀하니 울매여 무엇하며  
 벽계는 유유하니 우물파서 무엇하리  
 감천에 토호로다 농업얼 하여보새  
 석정얼 깊이갈고 초식얼 먹을망정  
 백연이 다진토록 이별업기 원이로다  
 다시금 생각하니 쓸새업는 한별일새  
 이회별한 외같은대 단장초흔 뿐이로다  
 악수환영 만나보아 적조진정 하고지고  
 님리별 하든날에 나는엇지 못죽엇노  
 대천바다 깊은물에 풍등실 빠지려만

지금까지 사라기는 부모와정든님 맛날난지  
창천도 미워하고 조물이 쉬기로다  
성음이 귀에쟁쟁 불사이 자사하며  
태도가 눈에암암 욕망이 란망이라  
상사에 중한병얼 어지하면 곤치널고  
신농씨 갱생하고 편작이 부생한들  
상사에 깊은병을 어이하면 곤치널고  
상사에 곤한몸이 상두에 잠을드러  
그리든 우리님얼 꿈가온대 잠간만나  
비회를 교집하고 별내사정 다뭇하여  
수가 오적성에 추풍에 썩겨부러  
처량한 그곡조에 잠든나을 깨울시라

[현대역]

어제 밤 바람소리 금성이 완연하다  
 고침단금(孤枕單衾)<sup>1</sup>에 상상몽(相思夢)<sup>2</sup> 홀연히 깨어  
 죽창(竹窓)을 반개(半開)하고 막막하게 앉았으니  
 만리장공에 하운(夏雲)이 흩어지고  
 천 년 강산에 찬 기운 새로워라  
 심사도 창연한데 물색조차 우감하다  
 정수리에 부는 바람 여한(餘寒)을 이루는 듯  
 추국(秋菊)에 맺힌 이슬 이별의 눈물 머금은 듯  
 잔류남교에 봄 꾀꼬리는 돌아가고  
 호월동영에 가을 원숭이가 슬피 운다  
 임 여의고 썩은 간장 아차 하면 끊어지리  
 삼춘에 즐기더니 옛일인가 꿈이런가  
 시우사창(時雨紗窓)<sup>3</sup> 요적한데 흡한 깊은 정아  
 야월삼경(夜月三更) 사어시(私語時)<sup>4</sup>에 백 년 살자 굳은 언약  
 단봉(單峯)<sup>5</sup>이 높고 높고 파수(波水)가 깊고 깊어  
 무너질 줄 몰랐으니 끊어질 줄 알았으랴  
 양신에 다마함은 옛부터 있건마는  
 지이인 하는 것은 조물주의 탓이로다  
 홀연히 부는 바람 화촉을 요동하니  
 웅봉자접(雄蜂雌蝶)이 애연히 하다는 말인가  
 간장에 감춘 호기 도적 맞을 길 전혀 없고  
 금능에 잠긴 앵무 다시 희롱 어려워라  
 지척이 동방 천리 되어 바라보기 아득하다  
 은하작교(銀河鵲橋)<sup>6</sup> 끊어졌으니 건너갈 길 아득하다  
 은정(恩情)이 끊어졌거든 차라리 잊히거나  
 아름다운 자태 거동 이 몸에 항상 있어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로다  
 천수만한(千愁萬恨) 가득한데 끝끝이 느껴워라  
 하물며 부는 춘풍 심회를 부쳐내니  
 눈앞에 온갖 것이 전혀 다 시름이라  
 바람에 지는 낙엽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심히 듣게 되면 관기 될 바 없건마는  
 유유한 이별의 한 간절한데 소리소리 수성이라  
 구곡에 맺힌 시름 어찌하면 풀어 낼고  
 아이야 술 부어라 행여나 관회할가  
 잔대로 가득 부어 취하도록 먹은 후에  
 석양 산길로 을밀대(乙密臺)<sup>7</sup> 올라가니



풍광은 예와 같으나 만물이 소연하다  
 능라도(綾羅島)8 수양버들 성긴 가지 소슬하고  
 금수봉(錦繡峯)9 꽃 진 나무에 상엽이 표불하다  
 인간의 변화함은 측량하여 이를손가  
 간련히10 눈을 들어 원근을 바라보니  
 만탄에 넓은 물결 탕양(蕩漾)11함이 회포 같고  
 용산에 낮은 경치는 창울함이 심사 같다  
 부통문 송객정12의 이별에 겨워 슬퍼 마라  
 초패왕(楚霸王)13 장한 뜻도 죽기로 이별 서어  
 옥장비가(玉帳悲歌)14에 눈물을 지었으니  
 오강(烏江)15 풍우에 울었다는 말은 못 들었네  
 천지(天地)는 몇몇 췌며 이별은 누구누구  
 세상 이별 남녀 중에 나 같은 이 누가 있으랴  
 수로문(水路門)에 떠있는 배는 향하는 곳 어느 곳인가  
 만장수회16 서러운 후에 천 리 약수 건너가서  
 우리님 계신 곳에 수이수이 풀고 지고  
 성두(城頭)17에 낮은 경치 견디고 못 볼내라  
 장탄다우(長灘多雨)18 곡탄을 지었으니  
 바람결에 오총성은 묻노니 어느 절이고  
 초혜(草鞋)19를 떨쳐 신고 섬 거의 이르러서  
 영명사(永明寺)20 찾아들어 저 중아 물어보자  
 인간 이별 만든 부처 어느 탑전에 앉아 계신가  
 임 그리워한 일편단심 불전에 발원하여  
 임을 다시 못 보려면 차라리 죽어져서  
 백골은 진토되나 영혼이라도 높이 올라  
 임이 앉은 난간 앞에 어울러 보리로다  
 다시금 생각하니 이도 또한 운명이로다  
 죽장(竹杖)을 다시 짚고 부벽루(浮碧樓)21 올라보니  
 들 밖의 점점봉(點點峯)은 구름 속에 솟아 있고  
 청강에 흐르는 물 가을 하늘과 같은 빛이라  
 이윽고 도는 명월 교교(皎皎)22히 비치는데  
 그리운 상사 가운데 임의 얼굴인가 바랐더니  
 어찌한 뜬 구름이 명월을 가리었나  
 어와 이 웬 일이고 조물의 탓이로다  
 저 구름 어느 때 거쳐 밝은 빛 다시 볼까  
 송지간(松枝間)23에 명화편을 기리 읊어 배회하니  
 한로상풍(寒露霜風)24소슬한데 취한 술 다 깨었다  
 낙엽을 깔고 앉아 금준(金樽)25을 다시 열고

일배일배부일배(一盃一盃復一盃)26에 몽롱히 취했어라  
 짧은 탄식 긴 한숨에 발을 옮겨 이르러서  
 지향 없이 가는 길에 애연당(愛蓮堂)에 들었다는 말인가  
 부용일지(芙蓉一枝) 꺾어 들고 유심히 돌아보니  
 수면에 비친 꽃은 임이 나를 반기는 듯  
 염간에 드는 비는 내 심정을 아뢰는 듯  
 양양(洋洋)에 백구(白鷗)는 홍료(紅蓼)27 번에 왕래하고  
 쌍쌍의 원앙새는 녹수(綠水) 중에 떴다 잠겼다  
 이 인생 가련함이 미물만도 못 하구나  
 홀연히 다 떨치고 백말을 채찍으로 쳐서  
 산이나 구름이나 정처 없이 가자 하니  
 내 마음 허황하여 갈 곳이 아득하다  
 허회28 탄식하며 초려(草廬)로 돌아오니  
 간 곳마다 보이는 물색 어이 그리 심난한고  
 울 밑에 피는 국화 담 안에 서 있는 오동  
 임과 같이 볼 양이면 경관 좋다고 하련마는  
 도도한 심사 울울한 중 도리어 수색(愁色)이다  
 무정한 세월 여류(如流)한데 나날이 깊어가니  
 가기(佳氣)29는 때를 찾아 구추(九秋)30가 늦었어라  
 상하에서 우는 실솔(蟋蟀)31 너는 무슨 일로 나를 미워  
 지는 달 새는 밤에 잠시도 그치지 않고  
 긴 소리 짧은 소리 경경이 슬피 울어  
 적으나 남은 간장 어이 마저 썩게 하나  
 새벽달도 더디 올라 밤도 자못 길었어라  
 상풍에 옷는 흥안 운소32에 높이 떠서  
 웅웅한33 긴 소리로 짝을 불러 슬피 우니  
 부은춘풍34 화월야에 두견새 소리도 슬프거든  
 오도야 단장에 참아 어이 들을소냐  
 네 비록 미물이나 사정은 나와 같다  
 일폭 화전 펼쳐 놓고 때대로 사정 그려내어  
 감동해서 이르기를 이 내 사정 가져다가  
 명월사창(明月紗窓) 요직한데 임 앞에 던져주렴  
 지루한 이 이별은 생각할수록 끝이 없네  
 인연 없어 못 보는지 유정하여 그러한지  
 인연이 없었으면 유정인들 어찌하며  
 유정함이 없었으면 그리 긴들 어찌할가  
 연분도 없지 않고 유정도 하건마는  
 일성중남 복초에 어이 그리 못 보는고

오호 명월 밝은 때와 초산운우 성길 적에  
 설진심중 무한사도 확연한 꿈이로다  
 무진한 정회 강림하여 문 열고 바라보니  
 무심한 뜬구름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네  
 우리 님 계신 곳이 저 구름 아래건만  
 오며가며 둘 사이에 무슨 약수(弱水)35 갈렸기에  
 두 곳이 막막하여 소식조차 끊어졌다는 말인가  
 둘 곳 없는 이내 사정 어디다가 지접하리  
 벽상에 걸린 오동 강림하여 내려놓고  
 봉구황곡(鳳求凰曲)36을 한숨 썩어 오래 타니  
 여렴(餘斂)37이 요요하여 원망하는 듯  
 상여(相如)38 옛 곡조는 의연히 있건마는  
 탁문군(卓文君)39 많은 지음(知音)40 심심히 자취 없다  
 결연한 이 이별이 잊혀지기도 어렵도다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인간 백 년 얼마건대 각자 동서에서 그리는고  
 황천후토(皇天后土)41 이 뜻이라 이별 없는 것이 원이로다  
 진시황의 무덤을 시설할 때 어느 틈에 숨었다가  
 지금까지 유전하여 나의 일신 병이 되었는고  
 수양미월42 흠뻑 갈아 황모필(黃毛筆)43 덥석 풀어  
 월매초죽(月梅草竹) 돋은 화초 그리기는 옳건마는  
 명월사창 적막한데 나는 무엇 그리는고  
 상사(相思)라는 두 글자를 나를 위해 지었도다  
 창해월(滄海月) 저 달빛은 임 계신 곳에 비치리라  
 심중에 무한정수 나 혼자뿐이로다  
 가뜩이 심난한데 해는 어이 빨리 가는가  
 잘 새는 짝을 지어 무리무리 돌아가고  
 밤빛은 참담한대 먼 데 나무가 희미하다  
 경경이 흐르는 빛 절기 찾아 형화(螢火)44로다  
 적적한 빈 방안에 천연하게 혼자 앉아  
 지난 일 풀어내고 오는 설움 생각하니  
 산 밖에 태산이요 물 밖에 대해로다  
 구의산 구름 같이 바라볼수록 멀었는데  
 장장추야(長長秋夜) 긴긴 밤에 참아 어찌 견딜소나  
 아무쪼록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하나  
 원앙침 서늘하고 비취금 냉랭하여  
 효월(曉月)45이 비친 잔등불에 꿈도 그리 어렵도다  
 일병잔촉 벼슬 삼아 전전금금 앓았으니

금강령 새벽달에 오경인 줄 깨달았어라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금 한참을 앉아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려도 차라리 원수로다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일찍이 알았것마는  
명천(明天)이 감동하고 귀신이 도와서  
남교에 굿신풀로 월로정(月老情)46 다시 맺어  
소상강(瀟湘江)47 어느 날에 고안(孤雁)을 다시 만나  
봄바람 가을달에 거울 같이 마주 앉아  
이런 일 저런 말씀을 정화중에 넣어두고  
백 년이 다 지도록 끝이 없이 즐기다가  
남같이 유자생녀(有子生女)하고 한없이 지낼 적에  
인심이 괴이하여 뉘라서 시비하거든  
추풍 오호 저문날에 금범을 높이 달고  
가다가 아무 데나 산 좋고 물 좋은 데  
자좌오행 지법으로 수간초옥 지었으니  
집터를 보면 평생에 소원이라  
경태릉 모입수에 고두안산 더욱 좋다  
창송이 울창하니 울타리 매어 무엇하며  
벽계(碧溪)는 유유하니 우물 파서 무엇하리  
감천(甘泉)48에 토호로다 농업을 하여보세  
석정49을 깊이 갈고 초식을 먹을망정  
백 년이 다하도록 이별이 없기가 소원이로다  
다시금 생각하니 쓸 데 없는 한과 이별일세  
이 번 별한 산 같은데 단장초혼(斷腸招魂)50 뿐이로다  
손잡고 환영하며 만나보고 적조 진정 하고 지고  
임과 이별하던 날에 나는 어찌 못 죽었을까.  
대천바다 깊은 물에 풍덩실 빠지런만  
지금까지 살았기는 부모와 정든 님을 만날런지  
창천도 미워하고 조물주의 시기로다  
성음(聲音)이 귀에 쟁쟁 볼 사이 자자하며  
태도가 눈에 암암51 욕망이 난망이라  
상사에 중한 병을 어찌하면 고쳐낼가  
신농씨(神農氏)52 갱생(更生)하고 편작(扁鵲)53이 부생(復生)한들  
상사에 깊은 병을 어찌하면 고쳐낼가  
상사에 곤한 몸이 침상 머리에 잠이 들어  
그리워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잠깐 만나  
비회(悲懷)를 교집하고 이별의 내 사정 다 못하여

누구인가 부는 피리소리가 추풍에 섞어 불어  
처량한 그 곡조에 잠든 나를 깨울시라

[각주]

- 1) 고침단금(孤枕單衾) : 홀로 쓸쓸히 자는 여자의 이부자리
- 2) 상상몽(相思夢) : 이성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여 꾸는 꿈.
- 3) 시우사창(時雨紗窓) : 철을 맞추어 오는 비와 비단으로 바른 창.
- 4) 야월삼경(夜月三更) 사어시(私語時) : 달이 밝게 뜬 삼경에 사적으로 속삭이던 말. 이백의 [장한가(長恨歌)]에 나온 “夜半無人私語時”라는 시구를 원용한 듯.
- 5) 단봉(單峯) : 우뚝 솟은 산봉우리
- 6) 은하작교(銀河鵲橋) : 은하수에 있는 오작교
- 7) 을밀대(乙密臺) : 평양의 금수산(錦繡山)에 있는 정자. 사허정(四虛亭)이라고도 함.
- 8) 능라도(綾羅島) : 평양의 대동강 가운데 있는 경치 좋은 섬
- 9) 금수봉(錦繡峯) : 을밀대가 있는 평양 금수산의 산봉우리
- 10) 간련히 : ‘간신히’의 오기인 듯함.
- 11) 탕양(蕩漾) : 물이 질펀하게 넘쳐 흐르는 모양.
- 12) 부통문 송객정 : 북통문 송객정(北通門 送客亭)인 듯함.
- 13) 초패왕(楚霸王) : 초나라 항우(項羽)를 높이어 일컫는 말. 항우는 이름이 적(籍)이고 우(羽)는 자다. 스스로 초나라 왕이 되었으나 한나라 유방(劉邦)에게 패하여 오강(烏江)에서 자결하였다.
- 14) 옥장비가(玉帳悲歌) : 옥장 속의 슬픈 노래. 옥장(玉帳)은 장수가 거처하는 막영(幕營)의 미칭. 여기서는 화려하게 꾸민 장막. 증자고(曾子固)의 시 <우미인초(虞美人草)>에 “玉帳佳人坐中老”라고 읊고 있다.
- 15) 오강(烏江) : 항우(項羽)가 해하(垓下)에서 유방(劉邦)에게 패하여 자결했던 곳.
- 16) 만장수회 : 만단수회(萬端愁懷)의 잘못된 듯함. 끝없는 수심과 회포. 만단정회(萬端情懷)와 같은 말.
- 17) 성두(城頭) : 성위
- 18) 장탄다우(長灘多雨) : 긴 여울에 내린 많은 비인 듯함.
- 19) 초혜(草鞋) : 짚신.
- 20) 영명사(永明寺) : 평양 금수산 속에 있는 사찰. 광개토대왕이 지은 구사(九寺) 가운데 하나라는 설이 있음.
- 21) 부벽루(浮碧樓) : 평양의 모란대(牧丹臺) 밑 절벽 위에 있는 누각.
- 22) 교교(皎皎) : 달빛이 맑고 밝은 모양.
- 23) 송지간(松枝間) : 소나무 가지 사이.
- 24) 한로상풍(寒露霜風) : 한로 때 부는 서리바람. 한로(寒露)는 24절기 중의 하나.
- 25) 금준(金樽) : 금으로 만든 것과 같은 좋은 술통.
- 26) 일배일배부일배(一盃一盃復一盃) : “한 잔 한 잔 또 한 잔”이라는 말로 이백의 시 <산중대작(山中對酌)>에 나온 시구.
- 27) 홍료(紅蓼) : 천변에 자라는 붉은 여뀌대.
- 28) 허회 : 탄식할 때 발하는 감탄사.
- 29) 가기(佳氣) : 산천의 곱고 맑은 기운.
- 30) 구추(九秋) : 삼추(三秋), 곧 구월(九月).

- 31) 실솔(蟋蟀) : 귀뚜라미.
- 32) 운소 : 운(雲) 속. 곧 구름 속인 뜻함.
- 33) 웅웅한 :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34) 부운춘풍 : 부운춘풍(浮雲春風)의 오기인 뜻함.
- 35) 약수(弱水) :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에 있다는 전설적인 강. 길이가 삼천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 36) 봉구황곡(鳳求凰曲) : 중국 전한(前漢)의 문인 사마상여(司馬相如)가 탁문군(卓文君)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은 곡조 이름.
- 37) 여렴(餘斂) : 노래의 뒤에 이어진 후렴소리.
- 38) 상여(相如) : 사마상여(司馬相如). 사마상여는 전한(前漢)의 문인으로 사천(四川) 출신이며 자는 장경(長卿)이다. <자허지부(子虛之賦)>를 지어 이름을 떨침.
- 39) 탁문군(卓文君) : 상마상여가 <봉구황곡>을 지을 정도로 사랑했던 구애의 대상 인물.
- 40) 지음(知音) : 음악의 곡조를 잘 앎. 백아(伯牙)는 거문고를 잘 타고 벵 종자기(鍾子期)가 그 소리를 잘 알았다함.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소리를 아는 자가 없다하여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데서 유래한 고사. 마음이 통하는 친한 벗.
- 41) 황천후토(皇天后土) : 하늘의 신과 땅의 신. 곧 천지의 신령.
- 42) 수양미월 : 문방사우(文房四友)의 하나인 먹의 이름인 뜻함.
- 43) 황모필(黃毛筆) : 족제비의 꼬리털로 만든 붓.
- 44) 형화(螢火) : 반딧불.
- 45) 효월(曉月) : 새벽달.
- 46) 월로정(月老情) : 월하노인(月下老人)의 정을 잘못 표기한 뜻함.
- 47) 소상강(瀟湘江) :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에 있는 소강과 상강
- 48) 감천(甘泉) : 물 맛이 좋은 샘
- 49) 석정 : 석전(石田)을 '석정'으로 잘못 표기한 뜻함.
- 50) 단장초혼(斷腸招魂) : 창자가 끊어질 듯이 사랑하는 이의 혼을 부르는 것.
- 51) 암암 : 잊혀지지 않고 눈에 어른거리는 것
- 52) 신농씨(神農氏) : 중국 전설상의 제왕. 복희씨, 수인씨와 더불어 삼황이라 이르며, 이 중 신농씨는 농사를 주관했던 황제.
- 53) 편작(扁鵲) : 중국 전국시대의 명의. 정(鄭)나라 사람으로 장상군(長桑君)에게 의술을 배웠다. 성은 진(秦)이고 이름은 월인(越人)이다.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당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